본문 : 요한복음 13 장 1-11 절
제목 : 대야와 수건

1.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삼 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3 일 후에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내가 3 일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까? 저는 아마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을 찾아 여행이나 소풍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내 삶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이틀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날이 목요일 저녁이었구요, 예수님은 그날 밤늦게 가룟유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오전 9 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오후 3 시에 숨을 거두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서 유월절 식사를 한 이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추억의 시간인 것이죠.
요한은 1 장부터 12 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위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했어요. 이제 13 장부터 끝장인 21 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12 명의 제자만 특별하게 아끼시면서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소수를 집중적으로 변화시켜 그들로 주님의 일을 맡기는 방식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하고 관심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사랑하기도 벅찹니다. 1000 명의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사랑을 골고루 나눠준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집중시켜 몇 사람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붓는 다면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변화되는 것이구요. 예수님은 평생에 열 두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전파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3 년 동안 사랑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는데도,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헬라말 'telos(τέλος)는 '목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그날 밤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자 소망인가요?

2. 누가 더 크냐?

이 발씻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른 복음서의 시간 순서에 따르자면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이 이 사건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오전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는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이 한심하셨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배원리가 바로 "누가 더 크냐?"입니다. 옛날부터 누가 더 큰 지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군대에서 누가 크느냐는 시간순으로 평등하게 정해집니다. 빨리 입대한 사람이 무조건 큰 사람이고 그가 권력을 갖습니다. 지난 5 월 28 일은 제가 입대한 날이었습니다. 제 군번은 1996 년 5 월입니다. 6 월 2 일에 입대한 사람은 저랑 1 주일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제 후임병이 됩니다. 사회는 군대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작동 원리가 자본주의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누가 큰 지를 결정합니다. 구매력이라 하죠. 가진 재산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줄 세우기 합니다. 여기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더 큰 지 줄세우는 세상의 원리를 정면으로 대항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하신 겁니다.

3.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 되신 예수님

4 절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잖아요. 로마시대에 종은 무조건 겉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겉옷 속에 무기를 감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지 줄을 서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줄의 맨 꼴찌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는 빌립보서 2 장 6-7 절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을 돌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베드로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니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해할 날이 올거란 말로 설득하려 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불편하여 계속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세상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힘을 내려놓는 세상이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꿈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요한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가장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의 앞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족식 장면을 기록합니다. 세족식이야 말로 잊어서는 안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벤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심어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발은 세상과 접촉되어 더러워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신체 부위 중 발만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샌들을 신고 한 시간만 바깥을 걸어 다녀 보십시오. 가장 지저분해 지는 부위는 발입니다. 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발이 우리라면, 세상과 접촉하는 우리 인격과 자아는 더러워질 수 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더렵혀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더렵혀진 부분을 씻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나무라지 말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니까 서로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제 아들들이 가끔 자기 발 냄새 맡아 보라고 하면 코만 막았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아들들의 발을 닦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발을 닦아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발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며 더럽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과 온갖 오염물질로 가득한 직장생활과 세상 살이에서 우리의 자아와 인격은 더럽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서로 짊어지고 씻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사용한 섬김이 의미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에서 몸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천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사용하는 것이 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으로 섬기는 노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정면으로 대항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한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육체 노동과 물질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몸을 사용하여 사랑을 표현해 주셨죠.

5. 누군가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의 상징은 대야와 수건이어야 한다." 누군가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알려주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야 말로 세족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인격을 보며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기 위해 겉옷을 벗고 허리를 굽히는 수고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너는 나와 꿈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냄새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구요. 갈라디아서 6 장 1-2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취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바로잡아 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가십 꺼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한 지체의 모습이 보일 때, 서로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큰지 다투지 않고, 서로가 종이 되어 몸으로 섬김을 실천할 때 교회는 맑아집니다. 그러할 때 교회를 통해 맑은 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 없이 멀어지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 더 맑은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인가요? 다른 이의 지저분한 것을 닦아 줄 때 우리 또한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하나 교회의 상징이 대야와 수건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신다 믿습니다.